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4. 1. 11.(목) 11:00 이후(1. 12.(금) 조간) / 배포 : 2024. 1. 11.(목)

[2024년 국토교통부 정책 돋보기]

강원도 원주~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
여주~원주 복선전철 첫 삽

- 12일 서원주역에서 착공식… 수도권 접근성 획기적 개선 및 지역발전 기여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은 **1월 12일(금) 오전 10시 30분**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**여주~원주 복선전철*** **건설사업 착공식****을 개최하고,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복선전철은 상·하행이 분리되고,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

** 정부, 지자체,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150여명 참석 예정

○ **여주~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**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**22.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**하는 사업으로, **총 사업비 약 9,309억원을 투입**하여 **'28년 개통을 목표**로 추진된다.

□ **여주~원주 복선전철이 개통**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되어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,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,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**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**된다.

○ (**수혜지역 확대**) 또한, 현재 추진 중인 **수서-광주, 월곶-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**되면 인천(송도), 서울 강남(수서)에서 강릉(경강선), 부산(중앙선)까지 연결되어 **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(**동반성장 기틀**) 특히, 경강선은 **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**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**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**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**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**은 "여주-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**경강선은 중앙선,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**을 이루게 되어 **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**할 것"이라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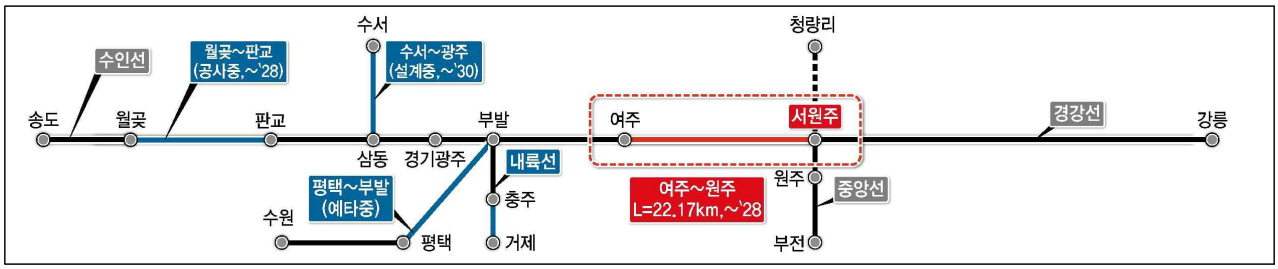
○ “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**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**로 강원도가 가진 **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**, 그 **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**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” 라고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건설과	책임자	과장	오송천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래 (044-201-3699)
			민간위원	유연준 (044-201-395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여주-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개요**

□ 사업개요



○ **사업내용** : 경강선 여주(교동)~원주(지정면) 복선전철 신설(22.2km)

* 정거장 3개소 개량(여주, 서원주, 원주)

○ **사업기간** : '16년~'28년 ○ **총사업비** : 9,309억원

○ **추진경위** : '12년 예비타당성 조사 → '21년 기본계획 변경 고시 → '22.7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→ '24.1월 실시계획 승인

□ 착공식 개요

○ (시/소) '24. 1. 12(금) 10:30~ / 서원주역 대합실(실내)

○ (참석) 장관님, 박정하·송기헌 의원, 강원 경제부지사, 여주시장, 원주시장, 공사관계자, 지역주민 등 150여명

○ (주제) 동서축 경강선의 주요 단절구간(여주~원주) 연결

○ (슬로건) 여주-원주, 동서를 하나로

□ 기대효과

○ (**단절구간 연결**) 경강선 단절구간인 여주~원주 구간을 연결하여 **동·서 네트워크 구축**(경강선 완성)

○ (**수혜지역 확대**) 현재 추진중인 월곶-판교, 수서-광주 등과 연계, **인천(송도), 서울 강남(수서)에서 강릉(경강선), 부산(중앙선)까지 연결**

☞ **여주·원주시**는 경강선, 중앙선, 내륙선과 만나 **철도 교통 허브로 발전**

※ 서원주~여주 9분, 서원주~수서 40분, 서원주~인천(송도) 87분 소요
수도권~원주 현재 31회/일 → 90여회/일로 증가

○ (**경제적 효과**) 생산유발효과 **1조 5천억원**, 고용 및 취업 유발효과 **2만명** 발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